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Question 1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Question 2 consists of two texts for comparative analysis.
- Choose either question 1 or question 2. Write one comparative textual analysis.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La question 1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La question 2 comporte deux textes pour l'analyse comparative.
- Choisissez soit la question 1, soit la question 2. Rédigez une analyse comparative de text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n la pregunta 1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n la pregunta 2 hay dos textos para el análisis comparativo.
- Elija la pregunta 1 o la pregunta 2. Escriba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textos.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문제 1이나 문제 2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 1.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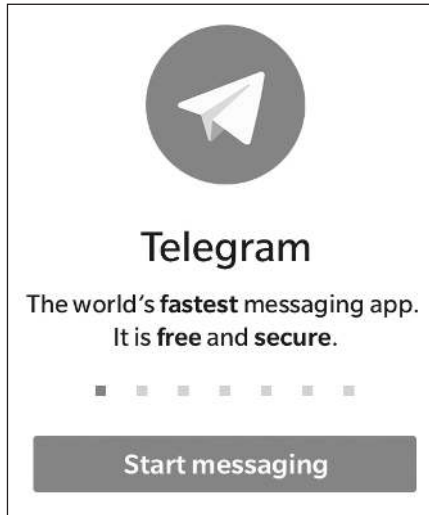
# “텔레그램”으로 튀어!

• “망명<sup>1</sup>완료,” 카카오톡을 제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한 메신저 앱 “텔레그램” 리뷰 페이지에 연달아 올라온 내용이다. 독일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정부 검열을 피해 국산 메신저에서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메신저다.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한 건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메신저도 검열 대상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누리꾼들이 찾은 대안이 “외산<sup>2</sup> 메신저”였고, 뒤늦게 검찰이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상황은 이미 악화한 뒤였다.

누리꾼들이 꼽는 텔레그램의 최대 장점은 보안성이다. 비밀대화 창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상대방만 읽을 수 있게 암호화돼 전송되고, 메시지를 지우면 상대방 메신저에서도 내용이 사라진다.

텔레그램에 한국인의 가입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동력은 현 정부와 국내 기업에 대한 불신이다.



텔레그램의 로그인 화면

텔레그램 이용자 가운데는 IT(정보기술) 업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이 많았다. 소설가 이외수는 트위터에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 100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하며

“입은 틀어막을 수 있어도 컴은 틀어막을 수 없다. 세계가 다 열려 있는 시대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실만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 때문에 외산 G메일과 텔레그램만 신난다. 참으로 ‘창조적’인 자해<sup>3</sup> 정책이다”라고 일침<sup>4</sup>했다.

소문을 듣고 가입했다 메신저 기능 자체에 만족한 사람들도 많았다. “카카오톡은 게임 초대도 하고, 광고 계정을 팔로하라며 공지도 하고, 송금 서비스도 하는데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한 텔레그램은 불성실하다”며 에둘러 카카오톡을 비판하는 글도 보였다. 사진, MP3, 동영상



<p>파일을 원본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넣다 휴대전화의 본 기능에</p>	<p>소홀해진 일부 스마트폰처럼, 공룡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도 한 번쯤 메신저의 본기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p>
---	--

구희연 기자, <주간동아> (2014)

- 
- <sup>1</sup> 망명: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김
  - <sup>2</sup> 외산: 외국산
  - <sup>3</sup> 자해: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함
  - <sup>4</sup> 일침: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이르는 말

글 B

# 메시지 보관, 이통사는 안 되고 카톡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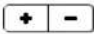
입력2014.07.07 (16:29)

수정2014.07.07 (17:10)

인터넷뉴스

공감 횟수 | 6

댓글 | 0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메시지 저장” 문제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이 엇갈린 행보<sup>1</sup> 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메시지 내용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 등 공익을 위해 메시지 저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5 오늘(7일) 각 업체에 따르면 SKT, KT, LG U+ 등 이동통신사는 문자 메시지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경찰은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하면서 일부 수험생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메시지 저장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부터 이동통신사는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용은 3~7일간 보관된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은 휴대폰 분실 등으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조치다.

- 10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에게, 통화를 걸고 받은 시간을 기록한 착·발신 내역,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12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온라인 메신저 기업도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 15



이 같은 조치는 통신 내역이 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sup>2</sup> 을 발부받아 해당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20 다만 현행법은 메시지 내용의 저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현재 각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이처럼 메시지 저장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sup>3</sup>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저장할 경우 범죄자를 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메시지 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김재현 기자, KBS News (2014)

---

<sup>1</sup> 행보: 걸음을 걸음. 또는 그 걸음 /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  
<sup>2</sup> 압수수색영장: 압수나 수색의 강제 처분을 기재한 재판서  
<sup>3</sup> 첨예하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2. 다음의 두 글을 비교·대조 분석하십시오. 두 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글의 전체 맥락과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형식과 문체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쓰십시오.

글 C

섬진강 12  
아버지의 마을

세상은 별것이 아니구나.

<중략>

우리가 여기 나서 여기 사는 것  
무엇무엇 때문도 아니구나.

5 시절이 바뀔 때마다

큰 소리 땡땡 치던

면장도 지서장도 중대장도 교장도 조합장도 평통위원도  
별것이 아니구나.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동경도 서울도 또 어디도

10 시도 철학도 길가에 개똥이구나.

아버님의 마을에 닿고

아버님은 새벽에 일어나

수수빋자루를 만들고

어머님은 헌 옷가지들을 깎더라.

15 두런두런 오손도손 깎더라.

아버님의 흙빛 얼굴로,

어머님의 소나무 꺾질 같은 손으로

빛나는 새벽을 다듬더라.

그이들의 눈빛, 손길로 아침이 오고

20 우리들은 살아갈 뿐,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이 땅에 사는 것

누구누구 무엇무엇 때문이 아니구나.

비질 한번으로 쓸려나갈

온갖 가지가지 구호와

25 토착화되지 않을

이 땅의 민주주의도,

우리들의 어설픈 사랑도 증오도

한낱 검불이구나.

빋자루를 만들고 남은 검불이구나 하며

30 나는 혈은 토방에 서서

아버님 어머님 속으로 부를 뿐

말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목이 메는구나.

김용택, <섬진강> (1985)

글 D

깊은 깨달음을 주는 글은  
쉬운 말로 되어 있다

내게 깊은 깨달음을 준 글들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았다. 쉬운 몇 마디 말로 사람과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일러주었고 간단한 비유만으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sup>1</sup> 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은 쉽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평이하지만<sup>2</sup>, 그 안에 얼마나 큰 뜻이 들어 있는가. 나는 이 글을 책상 위에 두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자주 바라본다.

나를 울린 노래들은 숭고하거나 귀족적인 노래가 아니었다. 내가 사랑을 잃고 괴로워할 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 심오한<sup>3</sup>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이런 「사랑의 송가」는 미사시간 내내 소리 없이 나를 울게 했다. 지나간 팔십 년대 그 어둡고 잔혹하던 시절 죄 없이 끌려가고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어갈 때 “불의<sup>4</sup>가 세상을 덮쳐도~” 같은 사실적이고 평이한 성가 한 구절이 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던 노래,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되게 하던 노래,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고 우리를 다독이던 노래도 다 알기 쉬운 말로 만들어져 있었다.

지적인 오만함과 우월감, 그리고 자만심에 찬 삼십 대 초반의 내 마음을 바로잡아 준 사람들은 학자와 교수와 지식인들이 아니었다. 내 이웃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었다. 병들어 아파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달려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내 이웃을 위해 나는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던가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나약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삶의 자세가 있음을 배웠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이현주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 이미 불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더 알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애쓰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다만 어렵게 어렵게 깨우치며 힘겹게 가고 있는 것이다.

도종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2004)

1 세리: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2 평이하지만: 까다롭지 않고 쉽지만  
3 심오한: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오묘한  
4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